



효강 종령 봉축법어



오늘은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쌓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

으로 뜻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고,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함께 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자비행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한번씩 주위를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중 종령 효강 합장

“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불교총지중 제89회 춘계강공회 봉행



▲ 제89회 춘계강공회 개강불사

“스승은 항상 먼저 참회하고, 모든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총지중 효강종령 예하가 제89회 춘계강공회 개강불사에서 스승들에게 내린 법어다.

일상교화에 매진하는 스승들에게 총지중의 소의 경전과 수행 전통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인 제 89회 춘계 강공회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지중 총본산 총지사와 통리

원 반야실에서 열렸다.

총지중 기로 및 현직 스승 전원이 참석한 이번 강공회는 개강불사에 이어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의 종령 정신교육, 화음사 법수연 전수, 단음사 지현 전수, 만보사 승원 정사의 교화 방안 사례발표, 실지사 법우 정사의 계율 강의, 밀교연구소장 법경의 정사 교학 강의, 승단총회,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의 교학 강의, 종강불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종령 예하는 법어와 정신교육에서 “전국의 사원에서 교화에 매진하시는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정 대성사에서 총지중을 창종하신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교화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모두가 불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진언 수행과 관법을 통해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어 가도록 교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합시다”며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거의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 자연환경은 급속히 파괴되어 매일 숨 쉬는 것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환경 파괴의 거듭된 악순환은 온 중생을 사랑하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난국을 타계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며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전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종강불사에서 “3일간 교학 강의와 염송정진의 시간에 적극 동참 해 주신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제각 사원에서 이번 강공에서 논의하고 새로 익힌 방법들을 교화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며 강공에 동참한 스승들을 격려했다.

인선 통리원장 봉축사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진리와 자비의 화신이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이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미망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부처님 오신날의 참뜻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생

명에게 자유, 평등, 행복이라는 희망을 열고, 참 나를 찾아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화와 갈등은 탐, 진, 치(貪瞋癡) 삼독이 그 원인입니다. 탐욕(貪慾)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성냄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리(事理)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괴로운 과보(果報)는 반복되며 중생은 고해(苦海)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층·지역·빈부·이념·종교 등 모든 갈등이 서로 표출되어 충돌을 일으키고, 인류는 불안과 공포(恐怖)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월은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반목과 불신

을 모두 없애고 소통으로 화합하고 세계 인류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는 대 전환의 계기가 되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보시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감싸 안으며 화합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시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리의 법음이 온 세상에 울리고, 진리의 법음이 온 세상을 밝히는 불국토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도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합장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장엄등 점등식

광화문 광장 미륵사지 석탑등 불 밝혀



▲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장엄등 점등식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장엄등 점등식이 12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됐다.

‘미륵사지 석탑등’은 사부대중의 불법승구호 소리에 맞춰 불을 밝힌 점등식에는 부처님오신날봉축위

원회 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총지중 통리원장 인선정사,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현스님과 사부대중 2,000여명이 동참했다. 석탑등 앞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대형 리본 등이 놓여져 점등식의 의미를 더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은 축원을 통해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서원했다. 봉축위원회 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함께 손을 잡을수록 서로가 의지하며 고마워할수록 우리 삶이 성장하는 것처럼, 나를 성장해 얻은 청명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자”고 당부했다.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戒)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佈)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종령 효강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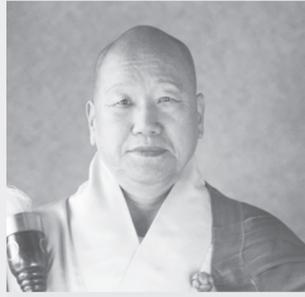
통리원장 인선

사감원장 안성 중앙교육원장 화령



부처님오신날 주요종단 중정 봉축법어

인류정신문화의 날이며 환희가 충만한 날



진제 스님
조계종 중정

부처님께서 처음 탄생 하실 적에
마야부인 옆구리로 금빛 몸 나투시니
아홉 용이 한꺼번에 향수를 뿌렸고
성금 성금 사방으로 걸음 하니 물레에는
연꽃이 솟아올랐네.
최후로 제일기(第一機)의 법(法)을 베푸시니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 하심이여!
(天上天下 唯我獨尊)
고금(古金)을 통해 이를 지나갈 자 누가 있으
리오.
거룩하고 거룩하십시오.

오늘은 무명(無明)의 사바세계에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으로 부처님께서 강탄(降誕)하신 인
류정신 문화의 날이며 환희가 충만한 날입니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대자대비
(大慈 大悲)의 연민으로 참나 선언과 참된 생명
본연을 만유법계 에 천명(闡明)하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생사가 없건만 몸소 생사로써 중생
들이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본래 부처' 입
을 보여 주시기 위해 출세한 거룩한 서원(誓願)
입니다.

모든 인류(人類)시여!

큰 지혜와 공덕(功德)을 누리고저 할진대, 일
상생활(日常生活)속에서 오매불망 간절히 '부
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의
심하고 의심할 지어다.

금생에 지혜의 눈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생
에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으리요!

필경일구(畢竟一句)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古碧潭空界月(만고벽담공계월)은

再三撈?始應知(재삼로록시응지)리라.

만년이나 오래된 푸른 못 속 허공중의 달은

두 번 세 번 건져 봐야만 비로소 알리라.

불기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진제 법인

깨침의 연기사상은 과학으로 증명



혜초 스님
태고종 중정

왜, 오늘 부처님은 사바에 오셨는가?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는 왜 일어나는가? 그 무슨 사유
로 삶과 죽음의 극단을 경험하게 되는가?

부처는 이상향의 정토를 가르쳤는데, 중생은 무명
(無明)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삼독(三毒)의
암흑으로 무지한 혼돈의 바다에 빠져서, 빛을 찾으려
는 노력조차 불가능한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모든 중생이 행복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가지
고 있다고, 2500년 전부터 영산회상(靈山會相)에서 혼
신의 힘으로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데, 중생은 궁극의
불성(佛性)을 인지하려는 노력조차 못하는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중생과 하나의 진리체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

해서, 인간으로 현신하시어 수많은 교화방편을 보이셨
는데, 중생은 영겁동안 쌓아온 불가사의한 업연(業緣)
의 장막에 가려져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범부이기 때
문입니다.

부처는 불비시식(不非時食)과 발우공양으로 자제력
을 겸한 건강수행은 물론 자연환경 가꾸기까지 실천하
셨는데, 중생은 화려한 음식으로 포식하고, 일회용품
남용 등으로 자신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범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인류 상생의 공동체 영위를 위해서, 경제가
없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말씀하셨는데, 중생은 나
르시시즘(自己愛)의 이기심으로 철용성을 쌓아서, 수
용하고 화합하려는 마음내기가 어려운 범부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하기에 부처님께서 오신 거룩한 뜻의 실천이 더
욱더 절실하고 빛이나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침의 연기사상은 현대과학으로도 하나씩 증명이 되
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중생은
부처님의 실천적 수행과 말씀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수용력을 길러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
다. 그리고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밝은 마음의 주인공
이 되어야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불자들 마
음에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불기2561(2017)년 부처님 오신날
한국불교태고종 중정 혜초

오늘은 참 좋은 날



도용 스님
천태종 중정

눈을 뜨고 하늘을 보라
빛나는 태양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와 이웃을 인도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실현하는 일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어둠과 차가운 그늘에 가려
힘들고 지친 이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진흙 속에서 때 묻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

우리의 모습이기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중생이 부르기 전에 이미 와 계신
그런 부처님을 만나는 날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정유년(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천태종 중정 김 도 용

눈을 뜨고 귀를 엽시다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눈을 뜹시다.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귀를 엽시다.
마음의 귀를 열고 내면의 소리를 들읍시다.

마음을 열어 자기를 바로 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참 주인공인 자성법신(自性法身)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받들어 찬탄하는 오늘
인연과(因緣果)의 이치를 바로 보고 깨달아
청정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 자리가 참되고 바른 진리이며
진정한 이치인 심인(心印)의 자리입니다.

심인(心印)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요
나눔을 행하는 자비이며 정진을 이끄는 용기입
니다.

삼밀수행(三密修行)으로 심인(心印)을 찾고
저마다의 가슴속에 자성(自性)의 등을 밝혀
자기 수행(修行)과 실천(實踐)으로
지혜(智慧)와 복덕(福德) 충만하게 하며
뜻하는 바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서원(誓願)하고 정진(精進)합시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회정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관성사	인선	4/20	20,000
	황성녀	3/30	10,000
기로스승	해정	3/21	10,000
	대관	4/20	10,000
	상지화	4/20	10,000
	수증원	4/20	10,000
	밀공정	4/20	10,000
	총지화	4/20	10,000
	선도원	4/20	10,000
	법수원	4/20	10,000
	법지원	4/20	10,000
	일성혜	4/20	10,000
	불멸심	4/20	10,000
	사홍화	4/20	10,000
	안주화	4/20	10,000
개천사	전세형	4/5	30,000
	황귀석	4/5	10,000
덕화사	이진승	4/13	10,000

	이상옥	4/13	10,000
단향사	록경	4/12	10,000
	김경남	4/12	10,000
동해사	탁상달	4/6	20,000
덕화사	조상효	3/27	10,000
밀인사	정정희	3/29	5,000
	이기상	4/20	10,000
	안옥진	4/20	10,000
	이성수	4/20	10,000
	박주연	4/20	10,000
	이수연	4/20	10,000
법천사	법경	4/19	500,000
벽룡사	양정현	4/4	10,000
	양지현	4/4	10,000
	권형민	4/4	10,000
	김강미자	3/30	10,000
법황사	박미경	4/18	10,000
성화사	무명씨	4/12	100,000

실보사	이순옥	3/22	10,000
실지사	법우	4/17	10,000
	인지심	4/17	10,000
	정경자	4/11	10,000
	정경자	4/13	10,000
	정경자	3/23	10,000
	유승태	4/17	10,000
	박병성	4/13	20,000
	박병성	3/30	20,000
	무명씨	4/12	20,000
	김봉민	4/17	10,000
	조성우	3/31	10,000
수인사	정순득	4/17	10,000
선립사	황귀석	4/5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3/30	10,000
	김용미	3/27	10,000
	하재희	3/27	50,000

지인사	허성동	4/17	3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3/27	30,000
총지사	신용도	4/16	10,000
	박정희	4/16	10,000
	손경옥	4/17	10,000
화음사	무명씨	4/4	10,000
	김순이	4/4	10,000
혜정사	정은선	3/24	10,000
혜정사	최영례	4/20	10,000
사원명무기명			
	정상철	4/14	10,000
	김갑선	4/19	10,000

3월21일 ~ 4월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
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
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서울 · 경인교구 교구장 “주인공으로 살아 갑시다”



▲서울 · 경인교구장법경정사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이 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의 봉축 표어가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란 차별하지 않는 세상, 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차별합니다. 차별하고 차별받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 차별하면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사바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차별 없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임제 선사의 어록 중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공이오,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참다운 모습이라는 뜻으로, 현재 지금 여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별 없는 세상은 내가 주체적으로 실천해갈 때 가능한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모두가 주인공이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적으로, 긍정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차별 없는 세상, 불국토 세상이 열립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연등불을 밝혀봅시다. 환하게 비추는 연등의 불빛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혀봅시다. 연등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연등의 주인공으로 살아 갑시다. 옴마니반메훤.

부산 · 경남 교구장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부산 · 경남교구장정인회주사

오늘은 인류사의 대 스승이자 성인인 부처님께서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쌓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려고 나투신 참으로 뜻 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간

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동족 간의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화를 내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들은 욕심이 빛을 잃고 또 다른 욕심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원망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회는 더욱 몰육에 몰육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가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에 따라 가진 자가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회가 될 때에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토로 거듭 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충청 · 전라 교구장 “내 마음속에 불성을 찾아”



▲충청 · 전라교구장지정정사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여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나투신 때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시며 “천상천하(天天下)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선언은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인간존엄성에 관한 일대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我)이며,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나로 인해 모든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무명(無明)과 탐욕(貪慾) 속에 갇혀 있는 불성(佛性)을 일깨워 중생을 다시 부처로 태어나게 하였고, 고통 속에서 대비(大悲)를 일으켜 해탈(解脫)을 얻게 하여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불성을 찾아 부처가 되는 길도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진리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나의 자성에 감춰진 마음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주와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일체성인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마음속에 해탈과 상락이정(常樂我淨)이 들어있고 중생의 자성(自性)에는 부처님 생명이 숨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내 자성속에 감춰진 불성을 깨우쳐 모든 번뇌와 고통을 여의고, 행복과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드리오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두손 모아 소원합니다.

“연등으로 밝은 세상 이루자” 신정희 서울 · 경인 지회장 김은숙

오늘은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온 세상이 연등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진리의 등불로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처님의 법을 의지하면 결코 인생은 고해의 바다가 아닙니다. 모두가 진리

의 화신이신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이어 받아 진언염송으로 즉신성불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전국의 총지종 교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공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도반 함께 가는 진리의 길” 신정희 부산 · 경남 지회장 황윤희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전국의 총지종 사원마다 아름다운 연등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가장 낮고 힘들 사람들에겐 진리의 빛으로 생사의 고향을 건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고, 열반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법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언염송으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어가는 총지종 교도들은 진리를 찾아 먼길을 같이 가는 도반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정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시력이 충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처럼” 신정희 대구 · 경북 지회장 최윤정

오늘은 불자들의 큰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외치시며,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중생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는 법의 진리를 등불삼아 자신의 불성을 찾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기 위해 용맹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부처님처럼 존귀한 존재이니 남 보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면 우리 마음속의 갈등과 앙금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신정희 충청 · 전라 지회장 민순분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올해 연등회 표어가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 합니다.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작은 미물이라도 생명을 가지고 불

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우쳐 주신 부처님은 온 우주에 진리의 법신으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적극적인 포교에 매진하고, 진언염송을 통해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참불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구 · 경북 교구장 “팔정도의 바른 길을 실천해 갑시다”



▲대구 · 경북교구장안성정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고통 속의 중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45년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하여 그 가르침과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가만히 있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할 집

은 바로 나의 아집과 교만, 태만과 게으름 등 불선(不善)의 집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요 우리가 뒤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사성제의 대로(大路)이며, 팔정도의 바른 길입니다.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은 곧 실천을 말합니다. 실천은 입과 뜻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실천이 아닙니다. 망언이자 악업입니다. 몸으로 행해야 실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통해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실천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실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실천의 길이 정해지면 바로 떠나야 합니다. 지체없이 떠나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이 순간에 행해야 합니다. 내일 가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시고 중생들을 위해 일생 동안 지내셨던 곳이 바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서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길을 찾아 만덕을 누리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일심으로 소망합니다. 옴마니반메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관성사
주교: 인선
신정회장: 홍순화
☎ 02-736-0950

밀인사
주교: 법등
신정회장: 박수빈
☎ 02-762-1412

법천사
주교: 법경
신정회장: 김정숙
☎ 031-751-8685

벽룡사
주교: 법일
신정회장: 오미순
☎ 02-889-0211

총지사
주교: 원당
신정회장: 박정희
☎ 02-552-1080

실지사
주교: 법우
신정회장: 정경자
☎ 02-983-1492

정심사
주교: 화령
신정회장: 관음행
☎ 02-491-6888

지인사
주교: 지성
신정회장: 김현숙
☎ 032-528-2742

시법사
주교: 서강
신정회장: 최임숙
☎ 032-522-7684

부처님오신날 주요종단 봉축사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꽃잎에 맺힌 이슬은 붉은 구슬처럼 빛나고, 푸르른 신록이 마치 비단을 펼친 듯이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봄별이 산과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나무와 풀을 따로 비추지 않는 것처럼, 천지의 이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으니 삼라만상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 모두가 존귀하고 스스로 온전하여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에게 전하는 깨침의 사자후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밝혀 주셨지만 세간과 중생들은 언제나 상(相)을 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서로 장벽을 만들고 편을 갈라 반목하면서 스스로 그 속에 갇혀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갈등과 불화로, 국가와 민족은 대립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온갖 차별하는 마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시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自性)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성이 청정한 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대하는 온 중생을 부처로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본래 면목을 드러내니 누구 하나 주인공 아님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이치를 바로 알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열립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아픔이 없는 사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점에서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위해 땀 흘린 노동

자의 옷깃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열린 미소에서, 자연과 더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농민의 손길에서, 상처받은 이웃을 얼싸안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품에서 우리는 부처의 세상을 봅니다.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회의 온갖 갈등과 남북의 대립, 어려운 국가 상황도 이러한 부처의 마음으로 풀어나가면 국민의 행복과 국토의 안녕, 지구촌 공동체의 평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지혜롭고 조화롭게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열 어주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임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모든 중생이 일어서 기뻐하는 참으로 빛나는 날로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웃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치자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

불자와 국민 여러분!
청정한 대지 위에 환희의 노래 울려 퍼지고 만 중생의 복락이 일만의 꽃으로 피어나니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일체의 탐욕과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시고 그 존엄한 생명의 실상이 무수무량의 지혜와 자비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무명이 깊고 깊어 참 생명의 실상을 외면한 채 욕심내고, 성 내고, 화를 내며 무명의 업장을 키워가니 중생계는 어느 하루 편 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

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는 좀더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밝혀 나와 이웃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치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환희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손에 손을 맞잡고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일체중생의 제도는 온세상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억겁의 세월을 거쳐 온 큰 서원



도산
태고종 총무원장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우리와 지방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천만 불자 및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봉축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무척이나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의 여망에 의한 국가 지도자가 새로 선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국가적 역량이 모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우리는 연등을 밝힙니다. 연등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사바세계를 진리의 광명으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등을 커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가진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온 세상이 밝고 향기로운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천만불자와 국민 여러분!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꽃이 피면 향기가 연꽃에 가득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연꽃처럼 우리도 청정한 마음과 보시행의 실천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이 건강한 향기

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면서 "일체중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 개개의 존재가 모두 존귀하며 모든 생명들이 차별 없는 절대 평등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원력을 지닌 삶은 밝고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실로 평생을 나투신 대자대비의 헌신과 일체중생의 제도는 온 세상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억겁의 세월을 거쳐 온 큰 서원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비록 자라는 곳이 진흙밭이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리고 일체 중생의 빠짐없는 구제가 아니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보살의 원력처럼, 청정한 마음과 차별 없는 자비가 온 세상에 두루하기를 기원하며 온 국민이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주인공으로 삼시다



희성
진각종 총무원장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인 세상은 차별이 없으며 분별도 없고 모두가 주인공인 밀엄정도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적 가르침으로 깨우쳐주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밝힙시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 나와 이웃, 생명을 가진 모든 유정들이 부처인 것을 알아 자비심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지혜롭고 자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보살행(菩薩行)이야말로 참다운 공양이요,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의 자세입니다. 바른 믿음과 깨달음 울곧은 실천과 증득으로 인과의 이치를 가르치신 부처님처럼 우리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광명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인류에 평화가 깃들고 국가와 사회, 가정에도 서원하는 것이 모두 성취되고 복덕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정각사 주교: 법상인 신정회장: 지종영 ☎ 051-552-7901	관음사 주교: 정인화 신정회장: 김홍옥 ☎ 051-896-1578	단향사 주교: 록경 신정회장: 박사임 ☎ 055-644-5375	덕화사 주교: 시정 신정회장: 윤숙희 ☎ 051-332-8903	밀행사 주교: 도현 신정회장: 허순자 ☎ 055-354-3387	법성사 주교: 법선 신정회장: 신혜영 ☎ 051-468-7164	삼밀사 주교: 남혜 신정회장: 김화자 ☎ 051-416-9835
동해사 주교: 법선 ☎ 051-556-0281~2	성화사 주교: 금강륜 신정회장: 허태연 ☎ 051-254-5134	실보사 주교: 덕광 신정회장: 김시분 ☎ 052-244-7760	운천사 주교: 정원심 신정회장: 이성미 ☎ 055-223-2021	일상사 주교: 수행월 ☎ 055-352-8132	자석사 주교: 수현 신정회장: 이지은 ☎ 051-752-1892	화음사 주교: 록경 신정회장: 강순란 ☎ 055-755-4697

충기 46년 제137회 승단총회 개최

제12대 중앙총의회 의원 17명 선출



▲ 제137회 승단총회

제137회 불교충지승단 총회(의장 효강 종령)가 4월 19일 동리원 반야실에서 봉행됐다. 승단총회 의장 효강 종령 예하의 개회 선언에 이어 개회불사, 의안보고, 제12대 중앙총의회 의원 선거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개회사에서 “일선 사원에서 교회에 매진하시는 스승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승단총회에서 종단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고, 임기가 만료된 총의회 의원을 다시 선출하여,

제12대 중앙총의회를 원만히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며 승단총회에 임하는 스승들을 격려했다.

총리원은 제134차 중앙총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승단총회에 보고하고, 제12대 중앙총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표를 거쳐 선출된 17명의 총의회 의원 명단을 승단총회 의장 효강 종령 예하에게 보고했다. 이어 선거결과를 총리원장 인선 정사가 발표했다. 제12대 중앙총의회 의원에는 법상인, 인덕심, 승효제, 진일심, 혜안정, 법수연, 행원심 전수, 수현, 법우, 승원, 도현, 서령, 덕광, 법상, 도우, 혜광, 법선 정사가 선출되었다.

임기는 충기 46년 4월 25일부터 충기 50년 4월 24일 까지다.

앞서 4월 17일 열린 제11대 중앙총의회 마지막 회의에서는 충기45년 종단 감사결과를 사감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상정한 안전들을 심의 결의했다.

동국대 불교대학교의 ‘수불장학금’을 수여

법경 밀교연구소장, 장학금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부

충지승의 밀교연구소장인 법경 정사가 지난달 5일 동국대학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수불장학금’ 수여식에서 연구논문 우수자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수불장학금 전달은 BBS 부산 불교방송 사장이자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와 안국선원장인 수불스님이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2010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장학금을 쾌척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연구논문 우수자 3명, 국제화 기여자 2명, 간화선 수행 모범자 3명 등 총 8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수불장학금’은 매년 연구업적과 국제화, 간화선 수행의 세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과 기여



▲ 복지기금을 전달하는 법경 정사

를 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급 되었으며 공개 접수와 함께 장학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와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법경 밀교연구소장은 보은의 뜻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종단 복지재단에 기부하였다.

교도 집중 수행프로그램 “만다라 행복 아카데미”

4월 13일부터 2박 3일간 괴산 수련원에서 열려



▲ 만다라행복아카데미

불교충지승 중앙교육원(원장 회령 정사)은 4월 13일부터 2박3일간 괴산 중원사에서 교도 집중수행 프로그램인 ‘만다라 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격려차 방문한 총리원장 인선 정사는 “종단의 교도 수행 프로그램에 동참해 주신 교도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을 통해 불성을 깨우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며 당부했다.

부산·경남 교구 교도 25명이 동참한 이번 수행프로그램은 중앙교육원장 회령 정사의 ‘행복한 삶’ 이란 강의를 시작으로 행복,

발원, 칭찬, 존중, 자연, 다도 명상으로 주제를 나누어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도는 대전 만보사 묘원화 전수를 중심으로 대구 개천사 보명심 전수, 제석사 행원심 전수, 광주 법황사 혜원정 전수가 교도들을 일대일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체험을 지도했다.

참가자정각사 이상록 보살은 “행복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잊었던 내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하는 도반들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며 참가 소감을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근 대전 만보사 묘원화 전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미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알찬 구성으로 총지승 교도들의 집중수행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 행복 아카데미의 성과를 말했다.

충지승 중앙교육원은 수행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시설 및 인력을 재점검하여 지속적인 상시 프로그램으로 정착화 시킬 예정이 다.

세월호 희생 영가 극락왕생 서원 불공

4월 16일 오전 10시 전국 사원에서

불교충지승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년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 희생 영가 극락왕생 서원불공을 봉행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과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색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아픔이 하루 속히 치유되기를 충지승 전 교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서원했다.

충지승 총리원장 인선 정사는 관성사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이 깊은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입니다. 희생된 어린 학생들과 많은 승객들의 영가들이 극락왕생하기를 서원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인양된 세월호의 마지막 수습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 법문했다.

보건복지부 MBC, 중앙일보 기자

일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체험



▲ 일원어린이집 일일교사 체험을 하는 MBC기자

불교충지승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일원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과 MBC 및 중앙일보 기자가 보육교사 일일 체험하고 4월 2일 저녁 8시 MBC뉴스에 방영됐다.

보통 회사원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보통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체험 교사들의 일원 어린이집의 하루는 아이들이 오기 2시간 전인 아침 6시 30분에 시작했다.

6살 열매반 아이들 18명이 모두 교실에 도착하면, 함께 책을 보고, 사진을 찍어주고, 그림도 그리고, 블록놀이도 하며 본격적인 교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특히 바깥공기가 나쁘지 않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부 활동을 했다.

체험교사들은 점심시간도 설 틈이 없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짬 내 얼른 밥을 먹고, 잔반 정리에 청소까지 할 일은 계속 이어진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오후에도 원내 집기들을 들어내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각종 행정 업무와 다음날 수업 준비를 했다.

12시간 이상 고된 업무를 한 체험 교사들은 보육 교사들의 현실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소중한 체험을 했다.

사회복지재단=김명석 교무

총지승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1/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 사회복지재단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불교충지승 사회복지재단 산하 일원, 초록, 포레스트, 잠원 햇살 어린이집 2017년 1/4분기 운영위원회가 3월 28일부터 개최됐다.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2016년도 결산 심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시설안전

점검, 시설관리, 학부모들의 현안 질의 등을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총지승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만히 하고, 교육 현장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따뜻한 원아 교육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각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시했다.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운영위원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교육현장에 반영 할 것을 말했다.

총지승 사회복지재단은 4개의 어린이집과 부산 바라밀 공부방, 전주 만다라 요양원을 운영하는 부처님 자비 실천 기관이다. 일원어린이집=김초량 기자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건화사

주 교 : 법 상
신정회장 : 류순옥
☎ 054-761-2466

개천사

주 교 : 우 인
신정회장 : 김옥희
☎ 053-425-7910

국광사

주 교 : 혜안정
신정회장 : 청정화
☎ 054-772-8776

단음사

주 교 : 도 우
신정회장 : 황월분
☎ 054-333-0526

선립사

주 교 : 혜 음
신정회장 : 이복선
☎ 054-261-0310

수계사

주 교 : 현 일
신정회장 : 이석주
☎ 054-745-5207

수인사

주 교 : 안 성
신정회장 : 이남이
☎ 054-247-7613

승천사

주 교 : 원 봉
☎ 054-746-7434

제석사

주 교 : 행원심
신정회장 : 김수자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연등 물결, 아름다운 불국토

불기 2561년 연등회 봉행



불기 2561년 연등회가 동국대학교에서 대법회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회의 율동 발표,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 연희단 율동 발표, 관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법회에 앞서 전통등 경연대회 시상식이 거행됐다.

총지중은 김은숙 신정희 서울경인지회장이 '연꽃 품은 아기부처님 온누리 지비광명을 비추다' 등으로 연등지계상을 수상했다.

총지중 통리원장 인신 정사, 진각중 통리원장 회성 정사, 천태중 총무원장 춘평스님 등 종단협의회 주요 임원스님들의 관불로 연등회가 시작됐다.

봉축위원회 위원장 지승 스님은 개회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온 국토가 평안한 가운데 지구촌의 평화를 이끌어 가는, 무한생명의 주인공은 바

로 우리 모두이며, 모두가 행복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존중하며 감사하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 라고 연등회의 문을 열었다.

조계종 중앙종의회 의장 원행스님의 경전 봉독에 이어,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자기만을 위한 애착심을 버리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차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질서와 반목을 거두고 갈등의 벽을 넘어 화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이웃을 돕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소승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전 발원문을 봉독했다.

진각중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기원문에서 "세월호가 참사 3년 만에 인양

극락왕생하고 미수습자도 하루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라고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미수습자 유가족의 이픔을 불자를 대표해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법회에 참석한 2만 여 명의 불자들은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행진선언에 따라 동대문으로 이동, 오후 7시 불교계 지도자들을 선두로 각 종단 및 사원 승직자와 불자 10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각까지 이어지는 연등행진을 펼쳤다.

행렬에는 글로벌 서포터스 100여 명과 사전 예약한 외국인 참가자 2000여 명도 손에 연등을 들고 동참했다.

오후 9시 30분부터 종각 일원에서 진행된 회향한마당을 끝으로 국가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의 화려한 행진은 모두 마쳤다. 동국대=김종열 기자





전국 사원 교도, 화합의 장에 서다

교도1,000여 명 동참, 연등으로 자비의 불꽃을 피우다.



불기 2561년 연등회는 총지중 전국 사원의 교도들이 모두 동참한 최대의 불사였다.

새벽 일찍 각자의 사원에서 출발한 1,000여명의 교도들은 동국대 대운동장 중앙 단상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울림마당이 시작 되자 사회자의 연호에 따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울동과 함성에 신명을 다했다.

총지중 합창단은 고운 빛깔의 한복으로 단상에 앉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동국대를 출발한 총지중 연등 행렬

단은 생활불교, 정통밀교, 총지중 기수단을 선두로 전국 사원 스승, 한반도등, 수문장등, 연꽃등, 호랑이등이 앞장섰다.

이어 연희단, 경성대학교 탈춤 동아리, 사물놀이패, 교도 등의 순으로 행진을 펼쳤다.

특히 총지중의 한반도 등은 평화통일을 서원하는 마음을 담은 창작등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부산 경성대학교 탈춤 동아리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총지중 행렬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동국대를 출발한 총지중 연등의 물결은 동대문, 광장시장, 종묘를 거쳐 과고다공원 앞에서 종단협의회와 VIP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도들의 연등 행렬을 격려했다.

종각에 마련된 회향 한마당을 거쳐 조계사앞에서 불기 2561년 연등제는 마무리 됐다.

교도들은 피곤하지만 환한 표정으로 연등축제의 감동을 가슴에 안고 각 사원으로 돌아갔다.

종로=김종열 기자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2

『대승장엄보왕경』과 밀교의 관음신앙

2. 『대승장엄보왕경』의 성립

『대승장엄보왕경』의 범본원본은 427년의 성립설이 있으나 이것은 티베트의 전설적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경전의 성립 시기와 성립 장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인도 카스미르의 Gilgit 근방에 있는 탑형의 구조물 속에서 1931년 7월 슈타인(Sir Aure Stein)에 의하여 발견된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서 성립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Gilgit 산스크리트 문헌은 서지학적 입장에서 기원 후 7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승장엄보왕경』도 이 문헌 속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전의 성립시기를 기원 후 6세기 이전에 성립하기 시작하여 기원 후 10세기에 완성한 것으로 결정짓기도 한다.

그러나 『대승장엄보왕경』의 내용 중에서 관음신앙과 Avadāna적 문헌에 보이는 전설적인 내용, Purāna적인 창조설 등은 이 경전의 성

립 년대를 기원 후 6세기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대승장엄보왕경』은 기원 후 6세기 전에 계승본이 먼저 성립되었고, 뒤이어서 산문본이 성립하기 시작하여 기원 후 8세기경 티베트역이 성립되기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범본원본과 티베트역과 한역이 현존하고 있다. 번역본 가운데 티베트역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한역은 그보다 훨씬 뒤에 번역되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계승본과 산문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경전의 산문본은 야란타라국의 밀림사 출신 삼장사문 천식재가 한역하였다.

천식재는 송나라 태종 홍국 5년(980)에 삼장시호와 함께 송나라에 와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 자의를 하사받았다. 홍국 7년(982)에는 명교대사의 칭호를 받았다.

982년 태평홍국사의 서편에 역경원을 설립하여 법천(법현), 시호와 함께 역경의식을 정하고 가지고 온 범본을 번역하는 등 전법에 힘썼

으며 옹희 3년(986)에는 삼장성교서를 받고 함평 3년(1000)에 입적하였다. 따라서 『대승장엄보왕경』의 정확한 번역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천식재는 980년에 중국에 와서 1000년에 입적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대승장엄보왕경』을 번역한 것으로 보아 10세기 말에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티베트역은 8세기 초 인도학자 지나미트라(jinamitra)와 다나사라(Dānaśīla) 그리고 티베트 번역가 예세데(Ye ses sde) 등이 함께 번역하였다.

육자대명다라니의 유래를 밝히는 또 다른 문헌으로 『마니카봄(maṇi bkah lhun)』이 있다. 이 경문은 티베트의 『관음경』이라 하며, 티베트의 제5대 송첸감포왕(Sron btsain sgampo)의 유해를 모아서 기록한 티베트불교의 보전이다. 이상의 유래에서 살펴보면 육자대명다라니의 성립 시기는 7세기 초의 『마니카봄』의 성립을 토대로 하여 차츰 10세기 말에 『대승장엄보왕경』이 번역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소리명상’에 관하여

인행선 (음악명상심리치유연구소 서울센터장)

소리명상이란?

소리명상은 소리 진동의 원리를 활용한 명상의 한 방법이다. 이는 하모닉스가 잘된 음악을 듣거나 조율이 잘된 특정한 소리 예를 들자면의 소리, 아름다운 연주나 노래, 생일불 연주를 듣거나 직접 자신이 목소리를 내어 명상하는 것이다.

이때 소리가 명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자 한다면, 소리에 대한 오롯한 집중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자각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소리명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리명상의방법

여기서는 직접 소리를 내어하는 명상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모음 활용 명상법으로 모음은 소리의 어머니다. 모음은 그 자체로서 진동을 가지고 있어

그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몸에 치유적 진동을 일으킨다. 모음을 길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치유효과가 있다.

둘째 음 활용 명상법으로 말과 소리의 본질은 “음” 이라고 불교 경전과 인도의 베다 경전에 서는 말하고 있다. 음은 가장 강력한 것, 그 힘만으로도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셋째 차크라 활용 명상법으로 차크라라는 뜻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모여있는 에너지 센터를 의미한다.

우리 신체에는 8만 8천가지 이상의 차크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7개의 센터가 있다고 요가 전통에서는 보고 있다.

각 차크라에 해당하는 모음, 씨앗 만트라를 활용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넷째 만트라 활용 명상법이 있다. ‘인간을 구원하는 생각의 도구’ 라는 의미를 가진 만트라

는 신성한 소리의 조합이다.

우리말로는 ‘진언’, ‘주문’ 이라 하는데, 만트라라는 명상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깨달음을 의미한다. 정해진 만트라를 지속적으로 영송 혹은 염송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해준다고 한다.

소리명상의효과

소리명상의 효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효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중력과 자각의 증진으로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주며, 신체적으로는 호흡을 조절하고 뇌파를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증진시켜 전체적으로 심신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또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정서적 정화가 일어나며 수행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와 번뇌를 극복하게 도와준다.

유물로 보는 밀교

국보 제290호

명 칭 : 금강계단 (金剛戒壇)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지산리)



▲ 금강계단

통도사는 우리나라 3보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큰 절로,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율사가 세웠다.

불가에서 금강계단은 승려가 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수계 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부처님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만다라의 구조와 동일하다. 지금 있는 금강

계단은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여러 차례 수리한 것이다. 양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금강계단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가운데에 종 모양의 석조물을 설치하여 사리를 보관하고 있다. 1층 기단 안쪽 면에는 천인상을 조각하고 바깥쪽 면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제석의 모습을 조각하였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35. 화불수(化佛手) 진언



옴 전나라 바맘타 이가리 나기리 나기니 흠 바탁
만약 세세생생 중생들이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그때 그시절

총기 2년 쫓묘(1973) 5월 16일

밀양선교부 개설

- 밀양군 밀양읍 내이동에 선교부를 신축. 주교 시각화(始覺花)전수임명

총기 3년 甲寅(1974) 5월 30일

재단설립허가증 수령

- 재단법인 불교총지중 설립허가증을 문화공보부 종무과에서 수령

총기 4년 乙卯(1975) 5월 12일

49일 진호국가불사 정진

- 49일간(夕刻起首) (수호국계주다라니경(守護國界主陀羅尼經))을 기초로 하여 진호국가불사를 스승과 교도 전부가 전국에서 일제히 정진

총기 4년 乙卯(1975) 5월 24일

관음합창단 결단식 거행

- 서대문선교부에서 스승과 교도가 다수 참석하여 관음합창단 결단식 거행

총기 6년 丁巳(1977) 5월 25일

《밀교장경》 초판발행

-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비라밀다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 교의 소의장경전(《밀교장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발행

총기 6년 丁巳(1977) 5월 31일

본산건축기공식 거행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총본산 건설현장에서 기공식을 거행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만보사

주 교 : 승 원
신정회장 : 민순분

☎ 042-255-7919

백월사

주 교 : 환수원
신정회장 : 박삼순

☎ 042-527-5470

법황사

주 교 : 서 령
신정회장 : 정우숙

☎ 062-676-0744

혜정사

주 교 : 진일심
신정회장 : 성미옥

☎ 043-256-3813

흥국사

주 교 : 지 정
신정회장 : 김현정

☎ 063-224-4358

중원사

주 교 : 정정심

☎ 043-833-0399

종합학교 소식

동해중학교 교직원 불자회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 동해교직원 불자회가 2014년도에 16명으로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이제는 우리 교직원불자회 회원이 2017년도에는 매년 한 두 명씩 늘어나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전체 교직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해교직원 불자회 회원수는 25명으로 늘어난 알차고 내실있는 불자회로서 중단의 한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교직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활동은 물론 교직원 불자회 장학금 모금 운동, 총지중교세 확장 노력, 삼사순례를 통한 심성 수련, 불우이웃돕기 운동 전개, 교직원간의 화합과 소통 노력을 경주하는 모범적 수행을 삶의 지표로 삼아 실천하고 있다.



▲ 동해중학교 교직원 법회(동해중학교 내 교법당 동해사 서원당)

로, 내세적 해탈을 현세적 해탈로 전환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법신 정사님을 중심으로 한 교리와 설법으로 한 달에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교리 공부는 물론 1일 1선 나누기 정답의 시간

을 통해 교직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함을 위한 다짐의 시간은 물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짐을 나눔으로써 교직원들간의 상호 배려와 협치 및 자기 연찬의 기회 강화로 소속감 고취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선남자 선여인으로서의 진언과 지승을 통해 훌륭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교직원 불자회의 서원은 몸에는 항상 병이 없고 모든 원적들로부터 행복을 받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며, 존귀한 모든 사람들이 시방세계의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교직원으로 거듭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동해중학교의 발전과 액난을 만나지 않고 극락세계로 인도됨을 기원하고 있는 수행법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어머니회와의 상호 소통과 합리적 협조를 통해 더 내실있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중단 산하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알찬 불자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2017 정유년에는 동해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동참관에 동해교직원 불자회 열정도 함께 녹아있음을 밝힌다.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칼럼 지혜의 눈

새로운 대한민국호와 리더십

“공동의 목표 향해 함께 나가야”
“책임윤리 따른 정치 실천할 때”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새 대통령 선출로 대한민국호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새로운 앞날의 운명을 그려가기 시작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 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화두와 씨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에 희망을 걸었지만 전망은 기대만 우리 반인 듯하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일사불란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마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핵과 미사일 등 강공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마당으로 끌어내느냐, ‘사드’ 배치 등으로 군사 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다른 분야까지 갈등이 표면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진전시킬지가 숙제이다. 미국과 소련이 맺은 얄타협정으로 분단된 한반도이고,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정전협정에 당사자가 되지 못한 대한민국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 운명의 진정한 주인 공이 될 수 있을까.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지도 주목된다.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루지 못하면 국민통합은 구호에 불과하다.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동체적 이념과 가치로 재부장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성장과 경쟁 위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동반 성장과 협력 위주의 시스템으로 바꿔 나갈 수 있을까.

지난 2015년 타계한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는 마지막 저서가 된 <구십 평생 내가 배운 것들>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무조건적인 의무행위를 위해 힘썼다고 자평한다. 특히 그는 어떤 결정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커다란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독일사민당이 적군파에 의해 억류됐을 때 결코 테러범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례를 소개하며, 총리 부부가 납치되더라도

테러범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서약을서를 남긴 일화를 소개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신념윤리를 따르는 정치가와 책임윤리를 따르는 정치가를 구분한 막스 베버 이야기이다. 신념윤리는 자기의 행위가 옳다는 신념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책임윤리는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이다. 여기서 슈미트는 조금이라도 예상되었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책임윤리를 따르는 정치가로서 스스로를 자인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옳다는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정치인도 드물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 공약(公約)이 빌공약 공약(空約)이 돼 버린 상황에서는 옳든 그르든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정진하는 정치인만 해도 대단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하지만, 결과를 돌보지 않는 신념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분명한 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을 공평무사하게 실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윤리에 따르는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그저 꿈인가.

불교는 가장 모범적인 정치가라는 전통 성왕마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둔다. 사회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을 고쳐나갈 때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아래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바람직한 대응 노력에 힘을 모을 때이다.



김봉래 불교방송 불교사회인의 책임 실천운동 TF팀장 겸 기획위원

천태종 분당 대광사 미륵보전 낙성 착공 14년 만에 낙성, 사부대중 1만 명 동참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각별한 인연과 공덕을 지었다. 불사에 동참하신 많은 불자들의 정성과 공덕이 세세생생 성불의 근간이 됐으면 좋겠다.” 고 기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미륵보전이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실현하는 천태도량이 될 것을 기원한다.” 며 범당 낙성의 의미를 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광사에 미륵보전과 미륵대불을 모신 이 거룩한 인연이 무명에 휩싸인 일체중생들에게 전미개오의 큰 빛이 되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단일 목조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로 국가무형문화재 신응수 대목장이 불사를 이끌었다. 1층 면적이 661㎡(200평)이며, 외형은 3층이나 내부는 통층 구조다. 내부에는 좌대의 높이는 2.7m, 좌불상의 높이는 14.3m로 총 17m의 미륵대불을 봉안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는 4월 10일 오전 11시 미륵보전 옆마당에서 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스님, 중국 및 일본 불교 대표, 문재인·안철수·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부인 등 1만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미륵보전 현판 제막식, 낙성 기념 테이프 절단식에 이어 진행된 낙성법요식에서 천태종 정종용 스님은 “이 땅의 괴로움을 자비로 녹여내고 오탁악세 말법의 죄업을 깊이 참회하며 용화 정도를 여는 커다란 원력을 세우니 뜨거운 신심 하나 되어 미륵도량이룩 하였구나” 고 법어를 내렸다.

전주불교연합회 공식 창립 총지중 흥국사 주교 지정정사 공동대표 선임



▲ 전주불교연합회 창립 총회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도광 스님, 지정 정사)는 4월 7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4월 5일 전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전주불교연합회는 총지중 흥국사 참종은 우리철, 금선암, 승암사, 정혜사 등 사찰 10여 곳과 전북 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전주불교청년회, 전주 불미니산악회 등 단체 20여 곳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총지중 흥국사 주교 지정 정사,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도광, 참종은우리철 주지 회일, 금선암 주지 덕산, 정혜사 주지 지섭 스

님, 이창구 전북 불교대학장, 박순종 전주부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대표 도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주 지역에 없던 불교연합회가 창립돼 지역불교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공동대표 총지중 흥국사 주교 지정 정사는 “전주 불교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총지중의 모든 역량을 모아 연합회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며 공동대표로서 각오를 말했다.

전주에는 그동안 종단과 사찰, 단체 간 소통 부족으로 지역불교를 대표하는 사업연합회나 협의 기구가 없었다. 전주불교연합회는 종단, 계파, 승속을 초월해 지역 불교 중흥과 사회적 역할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차에 걸친 준비모임을 갖고 4월 5일 창립총회에 이어 이날 법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창립됐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서울경인지회

지회장 : 김은숙
부회장 : 박정희
 손경옥
총 무 : 이인성
 홍순화

부산경남지회

지회장 : 황윤희
부회장 : 이지은
 허태연
 류길자
총 무 : 조향선
 신혜영

대구경북지회

지회장 : 최윤정
부회장 : 권순복
 김연조
총 무 : 김상필
 곽노선

충청전라지회

지회장 : 민순분
총 무 : 배정임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지계공덕(持戒功德)

회령(중앙교육원장)

보살계는 대승보살이 지니는 계율로서 대승계(大乘戒)·불성계(佛性戒)·방등계(方等戒)·천불대계(千佛大戒)라고도 한다. 소승성문이 지니는 계율은 소승성문계(小乘淨戒)라고 한다. 보살계는 삼취정계(三聚淨戒)라 하는데 섭율의계(攝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의 3가지이다. 지율의(持律儀) 계율을 지킴)·수선법(修善法:선법을 닦음)·도중생(度衆生:중생을 제도함) 등 삼대문(三大門)의 일체불법을 다 모은 것으로써 계를 삼는 것이다. 보살계를 설하는 대승경전은 매우 많으나 크게 나누면 범망경 계통과 유가경 계통의 2가지 틀전에 의한다. 범망경본의 수계작법은 <범망경률장품>에 나오는데 그 계상은 십중금계와 사십팔경계로서 출가·계가를 막론하고 다 지킬 수 있다. 유가계본은 유가사지론권사십·권사십일에 나오며 여기서도 삼취정계를 기준으로 하며 출가계가를 막론하고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소승칠중계를 받고 오레도록 법하지 않아야 대승계를 받아질 수 있다. <범망경권하>에 의하면 수지보살계를 수지하는 데는 5종의 공덕이 있다고 한다.

①시방제불이 지켜주신다(十方諸佛慈念守護) ②임종시에 정견을 지니고 환희하다(臨命終時, 正見心歡喜) ③태어나는 곳에서 모든 보살과 벗이 된다(所生之處與諸菩薩爲友) ④공덕이 많이 쌓이고 계가 성취된다(功德多聚, 戒度成就) ⑤금세와 내세에 게로써 복혜가 원만하다(今世後世性戒福慧圓滿).

보살계는 우바세·우바이·사미·사미니·식차마니·비구·비구니 등 칠중계(七衆戒) 이외의 바라이목차[별해탈계(別解脫戒)]이니 보살의 신분은 칠중의 안에도 있고 또한 칠중의 바깥에도 있는 셈이어서 일체계를 포함하면서 일체계를 초월한다고 보아 훨씬 뛰어난 계라고 본다. 범망경에서는 보살계는 계율의 본원이며 보살의 근본이니 이는 모든 불자들의 근본이라 하고 있다. 보살계의 성질은 팔계(팔관계)와 비슷한데 팔계 또한 칠중계 외의 일종의 별해탈계이다. 그러나 보살계 가운데에는 팔계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립계(頓立戒)』라고 하며 어떤 부분은 팔계와 다르고 오히려 칠중계의 『점차계(漸次戒)』와 비슷하므로 보살계의 종류를 둘로 나누어 돈립으로서 보살계 하나만 받아

도 된다고 보는 입장과 점차적으로 삼귀오계를 먼저 받고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는 2가지의 입장이 있다.

한역장경에서 비교적 중시되는 보살계본 혹은 보살계경에는 보살영락본업경·범망경보살계본·유가사지론보살계본·보살지지경계본·보살선계경계본·우바세계경계본 등의 6종이 있다. 만약 돈집 2가지로 분류한다면 영락과 범망은 돈립에 속하고 그 나머지 유가·지지·선계·우바세 등의 계경은 점차계에 속한다.



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한 계율(戒律)

“계율을 지켜 나가면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당연히 짓지 않게 되어 그만큼 번뇌가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한 상태에 들게 되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1. 강한 계율수행으로 타성을 타파

계율 수행은 먼저 행동의 계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마음의 계를 지키는 수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계율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과 사안이 있는 현실생활 속에서 해야 합니다. 계율 수행을 통하여 계의 근본을 깨달으면 계를 저절로 지키게 되어 계율 완성하고 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각으로는 탐욕을 갖지 말며 화내지 말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율을 실천하여 자신이 지닌 타성을 부수야 합니다. 계율이란 잘못된 습성을 버리기 위한 것이므로 처음에는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생활 속에서 무조건 참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2. 반복적으로 계율 실천

습관이 생활화 되면 습성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습성에 물들어 있으므로 본래의 자신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타성은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4.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는 계율 실천

계율을 실천하면 처음에는 외형적인 계율을 실천하게 됩니다. 계율은 행동만을 규제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심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계율을 지켜 나가면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당연히 짓지 않게 되어 그만큼 번뇌가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한 상태에 들게 되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 각각의 계율 수행이 처음에는 행동으로 시작하나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고 깨달아야만 계율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리하여 외부적인 행위를 단속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3. 몸과 입과 생각을 단속하는 기본적인 계율 실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지니게 된, 타성에 매여 몸과 입과 생각[身口意]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심자는 몸과 입과 생각을 단속하는 기본적인 계율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는 몸으로는 살생을 금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며,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며, 교묘하게 말을 꾸미지 말고, 이간질을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악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우
실지사 주교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법경(밀교연구소장)

교리의 바탕이 되는 것을 교상(敎相)이라 하고, 교리에 근거한 수행방법과 의식 등을 사상(事相)이라 한다.

강의 주제인 '수계의식' 과 '람자관' 은 사상에 포함된다.

1. 교상과 사상

교상(敎相)은 교리를 말하고, 사상(事相)은 교리에 근거한 여러 가지의 수행방법이나 의식 등을 말한다.

총지종의 교상은 교주를 비로자나불로 삼고 본존을 관세음보살의 본심인인 음마니반메혹으로 모시며, 준제관음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하여 즉신성불을 구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가 되는 소의경전도 교상에 포함된다. 사상은 교상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법과 의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수계의식

그 가운데 사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총지종에서 승직자가 되기 위한 계를 받는 데, 이 수계의식도 사상에 해당한다.

아함이나 율장에 따르면, 초기불교나 아비달마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가자가 삼귀의와 오계를 먼저 받

고, 그 다음 팔계계를 받으며, 출가를 할 때는 사미 십계를 받고 나중에 구족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의 구족계를 받는다. 이와 달리 총지종은 밀교종단으로서 재가의 대승보살계를 받는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십선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승의 기존 보살계와 다른 내용의 계를 받는다.

그것은 사중금(四重禁)과 십중금(十重禁)이다. 이 사중금은 초기불교의 사바라이의 사중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밀교의 십중금은 『범망경』이나 『보살영락경』의 십중금과도 많이 다르다. 밀교의 계는 모두 보리심을 바탕으로 하여 삼매야를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삼귀의와 오계 대신에 교도(敎徒)는 삼매야 계단으로서 대승계인 삼취정계와 밀교의 사중금계, 대승의 보살십선계와 십무진계를 한꺼번에 받고, 승직자의 경우는 금강계단으로서 삼취정계와 밀교의 사중금계, 십중금계, 삼매야계를 한 자리에서 받는다.

3. '람'자관

두 번째로 소개할 사상은 '람' 자관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한 것으로, 염승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하여 '람' 자를 관

다.

먼저 자신의 정수리 위에 '람' 자가 있다고 관하고 나서, 람자가 둥근 보름달 위에 있다고 관한다.

거기에서 밝은 광채가 난다고 관한다. 둥근 보름달은 삼각형으로 변하고 그 속의 '람' 자에서 붉은 빛이 난다고 관하는 것이 '람' 자관이다.

'람' 자를 통해 자신의 번뇌망상은 모두 불태워 없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관함으로써 일체의 번뇌망상은 사라지고 정(定)에 이르게 된다.

'람' 자를 관할 때는 분명히 '람' 자를 관해야 한다. '람' 자를 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관한다면 그것은 람자관이 아니다.

선무의 삼장은 『대일경소』에서 이르기를, '의치를 지키지 않으면 아사리의 명칭을 얻을 수 없다' 고 하였다. 의치를 지키는 것이 밀교 수행이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p>일원 어린이집</p> <p>원장 하재희 외 교사일동</p> <p>☎ 02-495-3221</p>	<p>강남구립 초록어린이집</p> <p>원장 황화성 외 교사일동</p> <p>☎ 02-445-2326</p>	<p>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p> <p>원장 손재순 외 교사일동</p> <p>☎ 070-7204-2030</p>	<p>잠원햇살 어린이집</p> <p>원장 김선희 외 교사일동</p> <p>☎ 02-536-8725</p>	<p>바라밀 지역아동센터</p> <p>시설장 김부강 외 교사일동</p> <p>☎ 051-552-7901</p>	<p>만다라 요양원</p> <p>원장 지정 외 종사자 일동</p> <p>☎ 063-224-4358</p>
---	---	--	---	--	---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실천밀교를 흥포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1년 봉축 법요식

| 일 시 | 총기 46년 5월 3일 오전 10시

| 장 소 |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불교총지종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